

<2014년 1월 3일 금요 자체 기도회 말씀>

말씀이 곧 사랑이다

본 문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참 고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할렐루야! 2014년 <성자 사랑의 해>가 밝았고, 우리는 지금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3년도를 끝까지 따라와 영광의 새해를 맞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영광의 새해’를 맞아서 지난 1월 1일 신년예배를 통해 <성자 사랑>이라는 주제에 따라 ‘성자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주면서, 그 방향에 따라 희망으로 움직이고 행하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이 시대에 보여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구원자를 통해 <성약 말씀>을 준 것이고, 또 우리를 휴거되게 할 <휴거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분체의 기도와 실천과 조건과 희생으로 성자는 그를 통해 <성경의 가장 핵>인 ‘창조 목적의 뜻’과 ‘재림과 휴거’에 대한 인봉을 다 풀어 주며, 우리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사랑이 이루어져 ‘창조 목적’을 이루어 ‘휴거’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신부성>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말씀은 <성약성경>이 되어 성약 1000년 동안 두고두고 전

하며, 수많은 자들의 육과 영을 ‘하늘 신부’로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자 사랑의 해>라는 주제에 맞게, ‘성자 사랑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성약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전해 주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1. 먼저는 하나님이 성자를 통해, 구원자를 통해 성령으로 감동시키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사랑하도록 역사해 주셨느니라.
2.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느니라.
3. 성자가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육신으로 삼아 사랑할 사람을 먼저 택하여 사랑하셨고, 또한 성자에게 택함을 받은 자가 성자의 육신이 되어 성자의 시대 재림의 뜻을 이루었고, 그 뜻을 따라 새 시대에 온 자들도 성자를 사랑하게 하셨느니라.
4. 성자가 그 육신 되는 자를 통해 먼저 이 시대 재림의 뜻을 이루시며 휴거될 자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시대를 따른 자들이 성자의 육과 함께 성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도록 하셨느니라.
5. **성자의 사랑**은 곧 구원자를 통해 주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다.
6.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

이니, 순종하는 자들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니라.

7.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요, 주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되므로, 그 사랑 또한 주께 거절당하느니라.
8. <주의 사랑>, 곧 <주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휴거의 이상’ 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느니라.
9. <세상의 사랑>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이성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각종 이성의 행위를 말하느니라. <주의 사랑>은 말씀을 주는 것이니, <말씀>이 곧 ‘사랑’ 이니라. 말씀으로 휴거되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니라.
10.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자는 가시와 엉덩퀴가 발을 찌르지 않으리라.
11. 이 시대 전능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이것이니, 곧 <휴거의 말씀>을 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니라.
12. 성자가 구원자를 통해 주는 말씀은 이 시대 황금 같은 성자의 사랑 이니라.
13.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 사랑을 결실한 자요, 천국으로 휴거되는 자니라.
14.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가 말씀하지 않느니라.

15. 주는 사랑하면, ‘말씀’을 주느니라.
16. 말씀은 곧 사랑이니, 말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휴거될 수 없느니라.
17. **전능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증거**는 시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다. ‘보낸 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으며, 또한 ‘택한 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느니라.
18.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랑하셨다. 이것을 볼 때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19. 사람은 육에 속한 자들인 고로 성자가 말씀을 주며 사랑하나, 시대가 악한 연고로 그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불신하느니라. 그 연고로 그들은 시대 신부로 택함 받지 못하였느니라.
20.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성자로 말미암아 <아들의 사랑의 말씀>을 받아 ‘하늘 아들의 명분과 권세’를 받았고, 이 시대 구원자와 너희는 성자로 말미암아 <신부의 사랑의 말씀>을 받아 ‘하늘 신부의 권세’를 받았느니라.
21. 사람이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타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어떤 말씀’을 받고 행하느냐에 따라 <사랑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타인>이 되기도 한다.
22. <말씀>은 말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이니라. 고로 <말씀>을 보고, 말

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분별하여라.

23. 말씀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니라.

24. 육에 속한 자에게는 육에 속한 말이 나오고,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이 나오느니라.

25.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말을 하여 <썩는 사랑>을 하나니, 그 사랑도 육과 같이 점점 사라지느니라.

26. **주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나. 진실로 말씀해 주는 것이니라.

27. 주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깨달아라. 주는 <영원불변한 말씀>을 주며, <영원한 사랑>을 하느니라.

<전환>

28. 우리가 완전하게 행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완전하게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나타내시느니라.

29. 성자는 나를 통해 보시고, 느끼시고, 얻으신다.

30. 나는 성자의 육의 몸이다.

31. 육의 것은 육을 통해 얻는다.

32. 육이 성자와 하나 될수록 성자의 눈으로 보게 되고, 성자의 마음으

로 느끼게 되고, 성자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느니라.

33. 사람의 육은 ‘뇌’를 통해 ‘마음’으로 느끼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마음이 성자와 일체 되어 성자의 마음과 주의 마음을 느껴야 하니, 그리함으로 성자의 생각과 주의 생각을 하게 되느니라.

34. ‘뇌’가 죽으면, ‘육신’도 죽은 것이니라.

35. 생각하지 않으면, 뇌가 죽은 것이니라.

36. 생각이 안 나니 행하지 못하여 다치고, 해를 받고, 죽기도 하고, 지옥에도 가느니라. 생각이 나니 행하여 복도 받고, 해를 피하고, 천국에도 가느니라. 고로 생각날 것이 생각나도록 범사에 기도하여라.

37. 사람이 생각이 안 나서 물건도 잃어버리듯, 사람이 생각이 안 나서 할 일을 잊어버리면 그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하느니라. 고로 생각날 것이 생각나도록 성자에게 구하여라. 성자와 일체 되어라.

38. 생각날 때 기록하고, 생각날 때 행하여라.

39. 뇌는 각각으로 죽는다. <종교 세계>로 생각하고 행하지 않으면, 뇌가 죽어 잠자게 된다. <물질세계>, <예술 세계> 등 각종으로 의식한 것만 생각하고 행한다. 뇌는 생각하지 않으면 잠을 잔다 생각하고, 마치 육신이 잠을 깨서 행하듯 뇌도 잠을 깨어 생각하고 행하여라.

40. 생각하지 않아 죽어 잠자는 뇌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면, 다시 살아나 총명해진다.

41. ‘치매’는 의학적으로 볼 때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다. 고로 다시 살아나기 힘들다. ‘뇌가 죽어 잠자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생기는 현상이다. 고로 생각하고 행하면 살아난다.
42. 젊은 10대, 20대, 30대도 정신적으로 뇌가 죽어 잠자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43. 공부를 잘하여 학식 면에서는 뛰어나도 뇌가 그쪽으로만 깨어나 살아 있지, 다른 분야를 모르면 다른 그 면에서는 뇌가 죽어 잠자고 있다. 모르는 쪽은 몰라서 못 하니, 뇌가 죽어 잠자는 것이다.
44.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전환>

45.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살아간다. 천국에서는 ‘영’으로 살아가게 되느니라.
46. 이 세상에서 성자가 누구냐. 보이는 그의 육이니라.
47. 성자의 육과 합한 자는 성자와 합한 자가 되어 그 혼과 영이 성자의 나라 <천국 신부성>에 가느니라.
48. <말씀>은 ‘영혼의 음식’이니, 꿈에 자기 혼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보아라.
49. **꿈에 자기 혼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 육신이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깨닫는지 그 차원을 알게 되나니, 그로 인해 자

기 육과 혼과 영이 성장하는 것이 좌우되느니라.

50. 꿈에 자기 혼이 누구와 음식을 먹는지 보아라. 성자를 상징하는 자인지, 분체인지, 사탄인지 분별하여라.

51.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다.

52. 생시와 영계는 동시에 이루어지느니라. 곧 육이 행하는 대로 혼과 영도 움직이고 행하느니라.

53. 혼과 영이 잘되려면 육이 잘해야 되나니, 육의 행위를 통해 혼과 영이 잘되고, 혼과 영이 잘됨같이 육도 잘되느니라.

54. 영적으로는 <혼>이 ‘육신’ 이니라. 그러니 육아, <육신>이 천국에 못 간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혼이 영과 함께 가지 않느냐.

55. <주>가 ‘성지 땅’ 이다. 성지 땅만 좋아하지 말고, 주를 좋아해라.

56. <성자>가 ‘천국’ 이다. 천국만 좋아하지 말고, 성자를 좋아하고 사랑해라.

57. 성자를 사랑하여 성자를 차지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되나니, 성자를 차지한 자가 휴거된 자다.

58. <성자>가 ‘천국’ 이다. 성자를 취해야 영원한 천국을 취하느니라.

59. <천국>은 ‘사는 배경’ 이요, <성자>는 ‘영원히 같이 살 영원한 사랑의 신랑’ 이니라. 성자를 차지해라.